

# 청년·시에 몰린 창업 열기... 호남서도 '후끈'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광주·전남 선정 비중 10.3% IT 분야 등 관심... 미 선정자 대상 재도전 멘토링도

전국 6만3000여명이 지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선발 결과, 광주·전남 선정 비중이 10.3%로 집계됐다.

수도권(26%), 영남권(25.9%), 충청권(20.5%)에 이어 네 번째 규모로, 지역 창업자들의 참여는 이어졌지만 전국 권역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6만300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5000명(일반·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연령과 경력,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 1기 모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만3000여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68.4%로 집계돼 청년 창업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3세 최연소 선정자부터 78세 최고령 선정자까지 이틀을 올리며 세대를 아우르는 창업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술 트랙 최연소 선정자는 '학교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최고령 선정자는 '음식을 쓰레기 탄화체를 활용한 친환경 나프타 제조 기술'을 제안했다.

로컬 트랙에서는 17세 청소년이 제안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가 선정됐으며, 최고령 선정자는 '못나 이사와 업사이클링 기반 에너지 분말스틱 개발' 아이디어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기반 창업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전체 선정자 가운데 지역 창업자는



한성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4%를 차지했다. 트랙별로는 일반·기술 트랙 70%, 로컬 트랙 90%가 지역 도전자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영남권 25.9%, 충청권 20.5%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지역 선정자는 전체의 10.3% (일반 트랙

8.9%, 로컬 트랙 15.7%)를 차지해 강원(6.8%)과 제주(2.7%)보다는 높은 비중을 기록했지만, 주요 권역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 분야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라이프스타일 17.8%, 바이오·의료

10.1%, 교육 6.8% 순이었다. 특히 AI 관련 아이템은 전체의 2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 분야가 48.2%로 가장 많았고 F&B(식음료) 분야가 37.3%, 뷰티 분야가 9.3%로 뒤를 이었으며, 교육 6.8% 순이었다. 특히 AI 관련 아이템은 전체의 2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심사에 참여한 멘토기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일반·기술 트랙 멘토기관인 씨엔터는 AI·딥테크뿐 아니라 지역혁신, 콘텐츠,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로컬 트랙 멘토기관인 서울창업경제혁신센터는 로컬 자원의 잠재력과 함께 시장 검증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5000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창업 초기 멘토링, AI 솔루션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1기에 선정되지 못한 5만8000여명에게는 평가 의견과 온·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이 제공된다.

한성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정된 5000명의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전자들에게도 체계적인 재도전 지원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고용보험 5개월 연속 상승... '청년·제조업'은 감소

### 고용부, 5월 고용행진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60세 이상이 증가 견인...안전공업·건설업 부진 영향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개월 연속 20만 명대 후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가입자는 12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 수도 45개월째 줄어들면서 업종·연령별로 온도 차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진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8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8000명(1.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내내 10만명대 증가에 그치다가 올해 들어 1월 26만4000명, 2월 25만9000명, 3월 27만명, 4월 26만9000명에 이어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28만

4000명(2.6%)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건복지업 가입자 수가 1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5만5000명), 사업서비스업(2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만2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감소세는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1만명 줄어 4월(7000명)과 비교해 감소폭도 더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 가입자 수가 2000명 줄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는데,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자동차 부품회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달 부품 제조업과 완성차 제조업

가입자 수가 모두 감소했는데, 안전공업 사고로 인한 부품 생산과 수출 차질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도 2만3000명 줄면서 감소가 3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가입자 역시 3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 규모는 8000명으로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6만5000명 줄면서 2022년 9월부터 45개월째 감소 중이다. 40대도 5000명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완화됐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20만7000명이 늘면서 노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4만6000명, 30대는 8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구인배수는 0.42로 집계됐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인인원을 신규 구직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한다. 지난해 5월 0.37보다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신규구인인원은 1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8.7%) 증가했고, 신규구직인원은 36만4000명으로 1만2000명(-3.3%) 감소했다.

신규구직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줄었지만 20대만 유일하게 1만1100명 증가했다.

전 과정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청년 뉴딜 정책 등이 일자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해당 산업에 고용24를 통한 구직등록 등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7.2%)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4200명), 제조업(-1300명), 공공행정(-800명), 숙박음식(-200명)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전체 지급자 수도 63만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만명(-6.0%) 감소했으며,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780억원 줄어든 1조328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올 여름 전기요금 AI가 알려준다

### 한전, 전기요금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시행

한국전력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과거 2년간 전력 사용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검증된 기준 1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월의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예측한다.

산출 결과에 맞춰 전월·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 요금 과다발생이 예측되면 고객에게 즉시 안내 메시지(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한전ON 앱푸시)를 발송한다.

일례로 과거 평균 전력 사용량이 430kWh인 4인 가구가 여름철 냉방기기 이용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AI가 이를 미리 감지한다.

이후 '이달 예상 사용량 460kWh, 예

상 전기요금 10만1650원 및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와 같은 직관적인 수치를 안내해, 고객이 실제 요금 청구서를 받기 전 스스로 전력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알람을 받은 고객의 66%가 실제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전은 올해 하절기부터 서비스 대상 50% 이상 증가 등 요금 과다발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계획이다.

10일 에너지게시백 가입 고객(179만 가구)을 시작으로, 7월에는 월 예측 사용량 450kWh 이상 고객, 8월에는 300kWh 이상 고객으로 순차 확대해 주택용 고객 약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잊혀진 호국 영웅들'

나라를 구했던 손으로, 찬밥을 물에 말고 있습니다.  
고지를 지켜냈던 영웅들은 이제 매일 끼니를 걱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뜻한 한 끼'로 보답할 때입니다.

6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월 2만원 | 국가유공자 도시락 선물하기 >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